논어 15편 위령공 2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賜也，女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？」對曰：「然，非與？」曰：「非也，予一以貫之。」

독음 · 자왈 사야 여이여위다학이지지자여 대왈 연 비여 왈 비야 여일이관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의 배움은 많이 외워 모은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원리로 관통한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賜 줄 사 사 / 也 어조사 야

女 계집 녀 여 / 以 써 이 이 / 予 자기 여 여 / 爲 할 위

多 많을 다 다 / 學 배울 학 / 而 말이을 이 / 識 알 식 식

之 갈 지 / 者 놈 자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對 마주볼 대 대

然 불사를 연 연 / 非 아닐 비 비 / 一 한 일 일 / 貫 꿸 관 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